

■ 역사 속의 이주, 이주 속의 역사 ■

## 정복의 신화, 이주의 기억 : 리고르와 기욤 르브르통

홍용진

### I. 종족투쟁

1976년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록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에서 미셸 푸코는 16-17세기에 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역사적 담론인 ‘종족투쟁(lutte des races)’에 주목한다.<sup>1)</sup> 그에 따르면 종족투쟁을 강조하는 역사서술은 결속과 통치의 역사인 로마사의 전통과 달리 저항과 예언의 역사인 히브리적 전통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계약과 합의가 아닌 지배와 예속을 정치변화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삼는다. 즉 한 정치공동체의 역사적 연속성과 정치적 합의보다는 서로 다른

1) 미셸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1976,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의 강의』, 박정자 옮김(동문선, 1998)[Michel Foucault, «Il faut défendre la société». *Cours au Collège de France* (Gallimard/Seuil, 1997)].

프랑스어 ‘라스(race)’는 일단 말[馬]의 종자를 뜻하는 고불어 또는 게르만어인 ‘haraz’, 또는 ‘razza’에서 유래한다. 여기에 개념이나 이념을 뜻하는 라틴어 ‘ratio’의 의미가 부가되어 동질적인 모습(즉 변하지 않는 본질)을 나타내는 일군의 가족집단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14세기까지 이러한 의미를 지녔던 ‘race’는 1480년에 와서야 “동일한 가족 또는 인민들의 선조와 후손 전체”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고 이내 16세기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영어 단어도 16세기에 프랑스어에서 유래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온라인 어원사전을 참조하였다: <http://www.cnrtl.fr>(프랑스어); <http://www.etymonline.com>(영어).

‘race’가 현재는 통상 ‘인종’으로 번역되고 있지만 16-18세기에는 ‘race’의 구체적인 예들로 프랑크족(Francis)이나 골족(Gaulois) 등이 제시되고 있다. 즉 현재의 ‘인종’의 의미와는 차이를 지니며 이러한 예들에는 ‘종족’이라는 번역어가 더 어울린다. 그럼에도 번역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논의가 절실한 것이 사실이다.

종족들(races)간에 이루어진 폭력과 이로 인한 정치체의 단절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종족’이라는 용어에는 19세기에 등장한 생물학적인 의미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오직 역사적·정치적 균열을 의미하기 위한 ‘종족투쟁’, 또는 지배와 예속이라는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획득한다.<sup>2)</sup> 즉 푸코는 현재 ‘인종’이라고 번역되는 ‘race’가 16-17세기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으며 그 의미는 영국혁명과 프랑스혁명의 넓은 맥락 속에서 지배와 예속, 또는 지배에 대한 저항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두 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푸코는 ‘인종주의’보다도 ‘종족투쟁’이 시간적인 차원에서나 그 중요성에 있어서나 먼저 분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종족투쟁’이라는 용어는 사회를 종족들의 구성으로 보는 관점과 역사를 투쟁의 갈등의 점철로 보는 관점이 결합한 결과다. 흥미롭게도 19세기에 들어와 이 두 관점은 다양한 변형태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결과가 당시 프랑스 역사가들이 제시한 ‘계급투쟁’ 개념의 고안이었다. 프랑수아 기조(François Guizot, 1787-1874), 오귀스탱 티에리(Augustin Thierry, 1795-1856), 아돌프 티에르(Adolphe Thiers, 1797-1877)와 같은 부르주아 정치-역사가들에 의해 채택된 이 ‘계급투쟁’은 기존의 ‘종족투쟁’을 부르주아사회에 맞게 변형시킨다. 이들에 따르면 봉건제 출신의 귀족들은 전통적인 지배-착취자인 프랑크족 출신이고 12세기 코뮌운동의 후예이자 프랑스 혁명의 주역인 부르주아는 피지배-피착취자로서 골족 출신이다. 이들에 따르면 프랑스의 역사는 평화로운 원주민 골족이 사나운 전사인 프랑크족에 의해 정복당하면서 시작되었고 골족의 후예인 부르주아가

2) 미셸 푸코, 같은 책, 85-107(「1976.1.28 강의」) [Michel Foucault, *Ibid.*, 57-74]

프랑크족의 후예인 귀족들을 타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sup>3)</sup> 즉 지배-피지배의 종족투쟁은 착취-피착취의 계급투쟁으로 전화되며 이는 곧 마르크스가 부르주아-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 개념을 고안하는 바탕을 제공한다.<sup>4)</sup> 지배와 피지배의 역사를 전복시키는 투쟁과 단절의 혁명사, 그것은 부르주아를 정당화 하건, 프롤레타리아를 정당화하건 역사에 균열과 단절을 도입하는 관점들을 형성한다. 다른 한편으로 푸코는 ‘종족투쟁’과 관련하여 투쟁보다는 ‘종족’의 순수성 보전과 생존경쟁에 초점을 맞추는 종족/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담론이 등장한다고 본다. 위의 관점에서 국가는 지배-착취 종족/계급의 무기 또는 도구였다면 여기에서 그것은 “종족의 순수성과 우월성 그리고 그 통합을 보장하는 도구”<sup>5)</sup>가 된다. 나치와 스탈린주의는 투쟁의 담론을 끌어오지만 그것은 피지배종족의 지배종족에 대한 투쟁이 아닌 다른 종족들에 맞선 한 종족의 내적 통합성과 획일화를 지향한다.

결론적으로 푸코에게 ‘종족투쟁’의 두 가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 번째가 분열된 종족들 사이의 정치투쟁이라면 두 번째는

3) Corinne Pelta, *Le romantisme libéral en France: 1815-1830. La représentation souveraine* (Paris: Harmattan, 2001), 139-141. ‘계급투쟁’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프랑수아 기조로 알려져 있다: François Guizot, “Cours d’Histoire moderne-7e leçon-30 mai 1828”, Cours d’histoire moderne (Paris: Pichon et Didier, 1829), 29: “코민 해방과 관련한 세 번째 가장 큰 결과, 그것은 계급투쟁, 사실 자체를 구성하고 근대사를 가득 채우는 투쟁입니다. 근대유럽은 사회의 다양한 계급들 간의 투쟁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4)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에티엔 발리바르는 계급인종주의에 대한 글에서 인종(race)과 계급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있다. Étienne Balibar, “Le «racisme de classe»”, Étienne Balibar & Immanuel Wallerstein, *Race, nation, classe. Les identités ambiguës* (Paris: La découverte. 1988 [1997]), 272-302.

계급투쟁 개념에 영감을 받긴 했지만 당연하게도 마르크스는 당대 부르주아 정치가이기도 했던 이들에게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티에르, 이 난쟁이 괴물은 거의 반세기 동안이나 프랑스 부르주아지를 흘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프랑스 부르주아지 자신의 계급적 부패에 대한 최고의 지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정치가가 되기 이전에 이미 한 역사가로서 자신의 거짓말 능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그의 공적생활에 대한 연대기는 곧 프랑스의 불행의 기록입니다. ...” (카를 마르크스, 『프랑스 내전』, 『프랑스 혁명사 3부작』, 임지현·이종훈 옮김(소나무, 1987[1993]), p.321.

5) 미셸 푸코, 위의 책, 102[Michel Foucault, *Ibid.*, 70-71].

단일하다고 주장되는 종족을 위한 생존투쟁이다. 전자가 정치적 투쟁과 사회적 갈등으로 점철된 역사의 균열로 점철된 정치적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후자는 순수성과 단일성의 역사적 신화 속에서 생물학적 생존의 필연성을 주장한다. 이상과 같은 통찰 이후 푸코는 16세기 이후 절대왕정의 국가주의 담론에 저항하는 귀족세력들의 분열적 역사담론, 특히 17세기 말부터 진행된 민족 이질성과 관련한 불랭빌리에(Henri de Boulainvilliers, 1658-1722)의 역사담론에 초점을 맞춘다. 푸코에 따르면 “잉글랜드에서는 노르만 족의 정복과 노르만/색슨 간의 종족적 이원성이 역사의 본질적인 분절지점이었다면, 반대로 프랑스 역사담론에서는 17세기까지 민족체에 어떠한 이질성도 나타나지 않는다. 골족과 트로이인 간에, 그리고 골족과 게르만족 간에, 또 골족과 로마인들 간 등에 이루어진 전설적인 친족체계는 권력이행의 연속성과 민족체 내에 어떠한 문제도 없는 동질성을 보장해줄 수 있었다.”<sup>6)</sup>

## II. 중세 프랑스: 동질성 담론의 역사?

이상과 같은 푸코의 입장을 크게 반박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노르만인의 잉글랜드 정복은 곧 헨리 2세(1154-1189)의 거대왕권을 탄생시켰다. 이는 강력한 왕권이 정복자였다는 사실을 감추거나 미화시키기는커녕 잉글랜드 인민들에게 플랜태저넷/플랑타주네(Plantagenet) 왕조가 정복자 이주 왕족이라는 사실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였다. 즉 잉글랜드 왕은 까딱하면 파국적인 폭군이 되지 않도록 늘 고위성직자와 앵글로-색슨 귀족들의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만 했다. 토마스 베케트 암살 이후 그의 동료 존 오브 솔즈베리(John of Salisbury 1120-1180)가 집필한 『정치체론(Polycraticus)』,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에서 의회로 이어지는 12-13세기 잉글랜드 역사의 전개는 바로 솔즈베리 서약과 덤즈데이북으로 대표되는 정복군주와 관련된 역사적 기억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잉글랜드에 비견할만한 급격한 이민족

6) 미셸 푸코, 같은 책, 153[Michel Foucault, *Ibid.*, 110-111](번역은 필자가 문맥에 맞게 교정하였다).

정복자의 도래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11-13세기 중세인들에게 게르만족의 대이동은 이미 잊혀져버린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였다. 게다가 프랑크인들의 갈리아 정착은 다른 게르만 부족들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또 덜 소란스럽게 이루어진 편이었다. 노르만 정복에 비견할만한 급격하고도 폭력적인 이민족의 이주가 프랑스에는 없었으며 설사 프랑크왕국이 정복자로서의 위용을 자랑했다하더라도 프랑크족의 정복적 성격은 프랑스가 아닌 작센을 중심으로 한 게르마니아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더군다나 프랑크족의 이동과 비교했을 때는 그 직전에 잉글랜드에서 이루어진 켈트인들에 대한 앵글로족과 색슨족의 거대한 침략의 물결이 보다 더 소란스러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즉 푸코의 지적대로 프랑스에서는 17세기까지 이전까지, 통상 개설서에서 중세로 분절하는 시기(5-15세기)에는 이질적인 민족보다도 친족관계에 의한 동질성을 더 드러내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중세 프랑스의 역사서술과 관련하여 푸코의 지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 볼 수 있을 듯하다. 실제로 13세기에서 15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프랑스 왕권은 자신의 다양한 도래기원설을 주장한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의 동질성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면 프랑스에서는 왜 왕권을 중심으로 친족적 동질성으로 수렴되는 기원의 다양성을 주장했을까? 또 같은 취지에서라면 프랑스 왕조의 외부 도래설 또는 이주설 자체는 왜 이야기 되었을까? 또 이러한 다양한 역사담론들은 푸코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듯이 과연 동질성만을 말하고 있을까?<sup>7)</sup> 불랭빌리에의 역사담론에 초점을 맞추면서 푸코는 담론과 현실 사이의 상호관계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중세 프랑스 역사서술에서 등장하는 상상의 또는 전설적인 이민족 이동에 대한

7) 미셸 푸코, 같은 책, 141: “나는 중세 이래, 아니 거의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에서 통용되던 하나의 설화에서부터 시작해 볼까 한다. 그 설화에 따르면 프랑스인은 프랑크족의 후예이고, 프랑크족은 바로 트로이인들이었다. (중략) 나는 이 설화가 중세 때 가지고 있던 의미나, 그 국가 창설과 광혜의 설화가 수행했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생각은 없다.”

주제들을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일별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sup>8)</sup>

솔직히 이러한 질문들에 만족할만하게 대답할 사료들은 한편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방대하다. 즉 한편으로 모든 역사서술들이 외부 이주설 또는 도래설들로 시작하지만 그것은 간단한 이주의 사실들과 계보만을 언급하고말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맥락을 살펴보기는 힘들다. 다른 한편으로 굉장히 다양한 역사서술들이 이러한 이주설들을 모두 제각각의 방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리와 종합을 힘들게 한다. 일단 본 글에서는 12세기 말 ~ 13세기 초에 ‘프랑스인의 이주’에 대한 전설을 본격적으로 유포한 리고르(Rigord, 1145?-1207)와 기욤 르브르통(Guillaume Le Breton, 1165-1226)의 저술들을 당시의 상황 속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들이 활동한 시대는 바로 프랑스에서 지방분권적 봉건제를 약화시키고 프랑스 왕의 영향력을 왕국 전체로 확산시킨 필리프 2세 치세(1180-1223)였다. 필리프 2세의 정치적 과제는 지방 봉건제후들 및 잉글랜드왕, 신성로마제국황제에 대항하여 프랑스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립하고 그 영향력을 프랑스 전역에 확대하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고르와 기욤 르브르통은 왕권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이후 중세 내내, 나아가 르네상스 시기까지 유행할 새로운 역사담론들을 창안하였다. 그것은 바로 프랑스인들의 ‘트로이 기원설’이었다.

### Ⅲ. 갈리아-프랑크의 트로이 기원설: 리고르와 기욤 르브르통

사실 다른 유럽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왕국은 프랑크족의 갈리아 이주와 함께 시작되었다. 개설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시피 현재 프랑스, 즉 로마시대 갈리아 지역에는 켈트인들, 즉 곁족이 살고 있었고 격렬한 저항 후에 기원전 50년 카이사르에 의해 정복된

---

8) 물론 이러한 검토는 종교전쟁이 치열했던 16세기 역사서술과 관련하여 더더욱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필자의 능력부족으로 16세기까지 다루는 힘들다.

이후 점차 로마화 되어 갔다.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곳에는 이후 게르만 왕국들이 들어섰다. 초기에는 이베리아반도에서 갈리아 남부인 아퀴타니아를 차지하는 서고트왕국이 들어섰고 로마제국 멸망 이후에는 지금의 벨기에 지역에서 이주한 프랑크족이 북부 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팽창하여 서고트 왕국을 밀어내고 전유럽으로 그 세력을 팽창시켜 나갔다. 하지만 리고르와 기욤 르브르통이 이야기하는 역사는 이상과 같은 건조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다. 왕정을 중심으로 한 기원의 신화에 목말라하던 이들은 켈트인들의 기원과 프랑크인들의 기원을 찾아 나섰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근거에 입각하여 이 두 종족을 트로이라는 하나의 기원으로 소급시켰다. 물론 이 트로이에 대한 이야기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Ἰλιάς/Iliás)』 보다는 로마시대 시인 베르길리우스(Publius Vergilius Maro, 기원전 70-19)의 『아이네이스(Aeneis)』를 통해 더 잘 알려졌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리고르와 기욤 르브르통 이전에 프랑스의 ‘트로이 기원설’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7세기 중반 『프랑크인들의 역사(Liber Historiae Francorum)』를 저술했다고 알려진 프레데가르(Fredegar)였다.<sup>9)</sup> 그의 간략한 기술에 따르면 아이네이아스(Aeneias)의 사촌인 프랑쿠스(Francus)<sup>10)</sup>가 아이네이아스와 마찬가지로 일군의 사람들과 멸망하는 트로이를 탈출하여 라인강과 다뉴브강 사이의 일대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곳의 야만족과 투쟁하여 시캄브리아(Scambria)라는 왕국을 세웠다. 그리고 이들은 메로베우스 왕조의 직계조상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아이네이아스가 로마의 기원이 되듯이 프랑쿠스는 프랑스의 기원을 이루며 역사적으로 로마와 프랑스는 가족 서열상 동등한, 먼 친척이 된다. 프레데가르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이름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7세기 중반에 이러한 창조적(?) 기술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 당시의 로마제국, 즉 동로마제국의 정치상황

9) Colette Beaune, *Naissance de la nation France* (Paris: Gallimard, 1985), 19-21.

10) 라틴어로 프랑쿠스이지만 이후 중세 불어로는 ‘프랑시옹(Francion)’으로 알려졌다.

및 대외상황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프레데가르의 역사서술은 명확히 메로베우스왕가의 프랑크왕국을 (동)로마제국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으며 이러한 과감한 기술은 동로마제국이 당시 이슬람의 팽창과 내분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sup>11)</sup> 카롤루스의 대관식과 마찬가지로 지중해지역의 오지인 서유럽 프랑크왕국은 늘 동로마제국 패권의 눈치를 보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프란쿠스 전설은 동로마 제국이 다시 활력을 되찾은 9-11세기 기간 동안 등장하지 않았고 한참 동안 프랑스의 역사서술에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2세기말 ~ 13세기 초에 들어서야 필리프 2세 시기의 역사를 서술한 리고르와 기욤 르브르통에 의해 새로운 내용으로 등장하게 되었다.<sup>12)</sup> 먼저 리고르의 『존엄왕 필리프의 업적(Gesta Philippi Augusti)』을 살펴보도록 하자. 리고르가 트로이 기원설을 끌어들이는 곳은 놀랍게도 필리프 2세가 1186년 파리 시내 주요 거리에 대해 포장사업을 실시한 사실을 기술하는 대목이다.<sup>13)</sup> 리고르는 가장 기독교적인 왕(rex christianissimus) 필리프 2세와 파리지의 관계를 카페왕조와 파리지가 공유하는 유구한 역사로 확장한다. 그는 왕궁의 거처인 파리(Paris)가 예전에 루테티아(Lutetia)라고 불렀으나 트로이왕 프리아모스의 아들 파리스(Pâris)의 이름을 따서 새롭게 불리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이를 실마리로 그는 프랑스왕가의 트로이 기원설로 이동한다. 프리아모스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헥토르고 다른 하나가 트로일로스였다. 리고르의 상상 속에 이 두 형제는 각각 프랑스의 기원과 (놀랍게도) 투르크의 기원을 이룬다. 그는 헥토르의 후손들이 프란키오(Francio; 프랑시옹Francion), 프리아무스(Priamus; 프리암Priam), 마르코미루스(Marcomirus; 마르코미르Marcomir), 파라문두스(Pharamunds; 파라몽Pharam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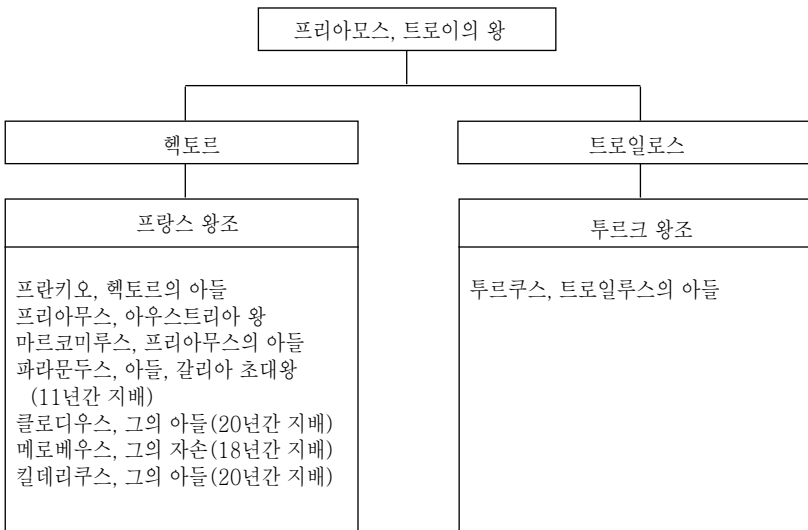
11) 게오르크 오스트로고르스키, 『비잔티움 제국사 324-1453』, 한정숙·김경연 옮김 (까치, 1999), 81-94.

12) 리고르와 기욤 르브르통의 저작은 19세기 말 역사가 앙리-프랑수아 들라보르드에 의해 편집, 출판되었다. Henri-François Delaborde (ed.), *Oeuvres de Rigord et de Guillaume le Breton. Historiens de Philippe-Auguste*, 2t. (Paris: Renouard, 1882).

13) 이하 리고르의 트로이 기원설에 대해서는 Henri-François Delaborde(ed.), *Ibid.*, 54-59.



클로디우스(Clodius; 클로디옹Clodion), 메로베우스(Meroveus; 메로베Merovée), 킬데리쿠스(Childericus; 쉐데릭Childeric)으로 이어진다고 기술한다. 여기에서 파라문두스를 제외하면 마르코미루스 이후의 왕들은 실제로 존재했던 프랑크족의 족장들이었고 킬데리쿠스는 프랑크왕국의 초대왕이었던 클로도베쿠스(클로비스)의 아버지였다. 다른 한편으로 트로일로스의 아들은 투르쿠스(Turchus)라 불리며 당시 쉐주크 투르크의 조상을 이룬다. 리고르는 다음과 같은 도표로 프랑스왕가의 계보를 간명하게 제시한다.



헥토르의 자손들은 프랑크족 뿐만 아니라 게르만족 전체의 조상으로 동고트족, 서고트족, 반달족, 노르만족은 모두 프랑크족에서 분기한 종족들이다. 이와 더불어 리고르는 프리아모스의 또 다른 자손들로 브르타뉴인들의 기원이 되는 브루투스(Brutus), 이탈리아인들의 기원이 되는 에네아스(Eneas; 아이네이아스)를 언급한다. 전자는 당대의 대 브리타니아(잉글랜드)와 소 브리타니아(브르타뉴)에 정착하고 후자는 로마를 건설한다. 리고르의 기술에서 더욱 흥미로운 점은 2만 3천명의 트로이 난민들을 이끌고 가장 먼저 갈리아 땅에 정착한 트로이의 공작(duc) 이보르(Ibor)의 존재다. 기원전 895년 그는 트로이인들과 함께 루테티아에 정착하여 도시를 건설하였고

파리스 왕자를 기러 도시의 이름을 파리(Paris)로 정하였다. 더불어 리고르는 파리스 왕자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파리아(Parisia)에서 유래하며 이는 ‘대담함(audacia)’을 의미한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이들 초기 갈리아인들은 곧 로마인들에 의해 정복을 당했고 이후 시캄브리아왕국에서 마르코미루스가 이끌고 나온 새로운 트로이인들, 즉 프랑크인들을 받아들여 현재의 프랑크왕국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후 마르코미루스의 아들인 파라문두스는 프랑크왕국(갈리아)의 초대왕이 되었고 그의 후손들은 메로베우스왕조, 카롤루스왕조, 카페왕조로 이어져 내려왔다.

생드니 수도사 리고르가 기술하고 있는 이러한 상상적 역사는 필리프 2세의 궁정에서 활동했던 기욤 르브르통에 의해 재생산되었다. 리고르가 기술한 『존엄왕 필리프의 업적』에 대한 다시쓰기를 하면서 그는 리고르가 파리아와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는 왕조의 기원을 아예 자신의 저술 맨 처음에 깔끔하게 정리하여 제시한다.<sup>14)</sup>

사실 리고르와 기욤 르브르통의 이야기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프랑시옹과 달리 실제 프리아모스의 아들로 기록되고 있는 안테노르(Antenor)는 프랑시옹의 라이벌로 수많은 게르만 종족들의 기원을 이루었다. 안테노르는 11세기에 뒤동 드 생캉탱(Dudon de Saint-Quentin)이 집필한 『초기 노르망디 공작들의 품행과 행적에 대하여(De moribus et actis primorum Normanniae ducum)』<sup>15)</sup>에서는 바이킹 출신의 노르만인들의 조상으로 여겨지기도 했고 11세기 말-12세기 초에 집필된 작자미상의 저서 『이탈리아 또는 베네치아 도시의 기원(Origo civitatum Italie seu Venetiarum)』에서는 베네치아인들의 조상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sup>16)</sup> 또 12세기 전반기 잉글랜드 성직자 제프리 먼머스(Geoffrey of Monmouth)는

---

14) Henri-François Delaborde(ed.), *Ibid.*, 170-173.

15) Jules Lair(ed.), *De moribus et actis primorum normanniae ducum auctore Dudone Sancti Quintini*(Caen, 1865).

16) John Baldwin, *Philippe Auguste et son gouvernement. Les fondations du pouvoir royal en France au Moyen Âge*, Béatrice Bonne(trad.) (Paris: Fayard, 1991), 469.

『브리타니아 왕국의 역사(Historia Regum Britanniae)』라는 상상적 역사서술에서 로마에 의해 정복되기 이전 브리타니아인들의 기원을 아이네이아스의 손자인 브루투스(Brutus)로 소급하고 있었다.<sup>1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고르와 기욤 르브르통의 프랑스 왕조의 트로이 기원설이 특이한 점은 바로 이보르와 프랑시옹으로 대표되는, 트로이계의 골족과 프랑크족의 이중 이주설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게르만족 또는 브리타니아인의 기원을 트로이에 단선적으로 연결하는 것 외에 리고르는 골족과 프랑크족이라는 서로 다른 종족들을 트로이에 연결시키고 있다. 전자가 트로이 귀족의 후손이라면 후자는 왕족의 후손이며 전자가 또 다른 트로이 왕족 출신인 로마인들에 의해 점령당했다면 이곳은 다시 후자에 의해 지배된다.

#### IV. 정치현실과 역사적 상상

그렇다면 리고르와 기욤 르브르통의 상상적 역사는 과연 당시의 정치적 현실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일단 이 두 사람의 역사서술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식화 할 수 있을 것이다.

- 1) 게르만족들, 특히 프랑크족은 로마인들과 마찬가지로 트로이인들의 후손들이다.
- 2) 프랑스 지역에 정착한 두 종족들은 본시 같은 종족의 두 갈래이다.
- 3) 필리프 2세가 속한 카페왕조는 메로베우스왕조와 카롤루스왕조를 연속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위의 세 가지 정식들은 다음의 정치적 의미들을 지니게 된다. 먼저 프랑크족의 트로이 기원설은 로마제국의 후손을 내세우는 모든 정치체들에 대해 프랑크 또는 프랑스왕국이 이들과 동등하며 나아가 독립적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13세기 초에 이렇게 로마제국을

---

17) 이 책은 또한 브루투스의 후손으로 브리타니아를 통일한 왕 아서(Arthur)를 처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표방하고 있던 세력은 ‘로마’교황청과 신성‘로마’제국이였다. 이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동로마제국은 로마이기보다는 그리스였으며 트로이를 멸망시킨 세력의 후손으로 해석되었다.<sup>18)</sup> 즉 트로이 기원설은 당시 서유럽 세계에 보편제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던 교황권과 황제권, 더 멀리는 동로마제국에 대한 프랑스의 독립성을 역사적으로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일단 종교와 상관 없이 투르크인들 또한 트로이인들의 후손으로 새로운 그리스인 동로마제국을 위협하고 있었고 이는 리고르로 하여금 이들이 프랑스인들과 같은 트로이인 출신으로 먼 친척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제시하게끔 하였다.<sup>19)</sup> 다음으로 골족과 프랑크족을 모두 트로이인들의 후손들로 보는 입장은 프랑스를 구성하는 두 종족들의 동질화를 목표로 한다. 이는 프랑스를 구성하고 있던 수많은 지방분권적 세력들을 프랑스라는 하나의 단일한 정치체로 포섭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즉 이중기원설은 서로 다른 준독립적인 지방적 정체성들을 결국 파리와 프랑스왕을 중심으로 하는 프랑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왕조들의 연속성에 대한 논의는 필리프 2세 당시 여전히 지속되고 있던 위그 카페의 왕위 찬탈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다. 파리를 매개로 필리프 2세로 대표되는 카페왕조는 메로베우스 및 카롤루스 왕조와 단절이 아닌 연속성을 지닌 왕조로 제시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데올로기적인 이 세 요소들은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된다. 이 지점은 다른 무엇보다도 필리프 2세 왕권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의 문제와 연결되며 이는 역으로 그의 정치적 입지가 이데올로기적 주장들과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점을 반증한다. 그 지점은 바로 지방 대귀족들의 정치적 정당성이었다. 필리프 2세의 즉위 전에 북부 프랑스에서 그 누구보다도 정치적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었던 자는 왕이 아닌 플랑드르 백작 필리프 1세(Philippe I, 1157-1191)였으며 이후 그는 북부 프랑스 귀족들의 자부심을 상징하게 된다. 즉 북부 프랑스지역에서 필리프 2세는 왕권을 쉽사리 인정하지

18) Colette Beaune, *Ibid.*, 49.

19) 물론 이후 투르크인들의 트로이 기원설은 십자군의 대의에 따라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져 곧 폐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Colette Beaune, *Ibid.*, 48-49.

않는 대귀족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호소해야만 했다. 이들은 실제로 1214년 부빈전투에서 잉글랜드왕 존 그리고 신성로마제국 황제 오토 4세와 함께 프랑스왕 필리프 2세의 군대와 맞부딪치게 될 세력들이었다. 특히 이들의 급속한 몰락을 가져온 부빈 전투 이전에 이들은 다양한 역사문학 텍스트 생산을 후원함으로써 중앙집권적인 왕권을 비판하고 봉건기사의 독립성을 역사적 진실성에 호소하며 정당화하고 있었다. 특히 플랑드르 백작의 가문은 모계를 통해 직접적으로 카롤루스왕조의 후손이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었다. 이는 카롤루스왕조로부터 왕위를 찬탈한 카페왕조에게 가장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sup>20)</sup> 개브리엘 슈피겔의 연구가 잘 보여주고 있듯이 실로 13세기 초는 새롭게 성장하고 있던 카페왕조 대 전통적인 지방귀족들 사이에 역사 이데올로기 전쟁이 펼쳐지고 있었다. 더군다나 이들의 후원으로 집필된 『로마인의 업적(Faits des Romains)』이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역사(Histoire de Jules César)』와 같이 로마사에 기댄 역사산문들은 존엄왕(August) 필리프를 독재자 카이사르에 비교하고 있었다.<sup>21)</sup> 지방귀족들, 특히 카롤루스왕조의 후예인 플랑드르 백작의 입장에서 보면 필리프 2세의 카페왕조는 근본 없는 지배자로 플랑드르와는 그 기원을 달리하며 로마의 독재자 카이사르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리고르와 기욤 르브르통의 가장 심각한 고민거리가 무엇이였는지가 드러나게 된다. 왕국 내에서 필리프 2세의 통합정책은 전통적인 지방 대귀족들과의 갈등 및 투쟁을 초래하였고 이들에 대한 승리와 우위는 카페왕조의 권위와 정당성 확보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카페왕조의 트로이 기원설은 각 지방 수준에서 카페왕조가 각 지역의 토착세력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역사적으로 보다 오래되고 문명(도시, 법, 언어)에서 보다 우수한 세력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sup>22)</sup> 그러면서도 카페왕조는 토착세력과 크게 다른 종족이 아니라는 점을

20)Gabrielle M. Spiegel, *Romancing the Past. The Rise of Vernacular Prose Historiography in Thirteenth-Century France* (Berkeley, Los Angeles, Oxfor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23-95.

21)Gabrielle M. Spiegel, *Ibid.*, ch.3-4.

22)Colette Beaune, *Ibid.*, 51-54.

강조한다. 필리프 2세는 궁극적으로 양자가 단일한 프랑스의 인민을 구성하길 바란다. 그러나 그에게 그 단일성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가장 유구한 역사를 주장하는 카페왕조여야 했다.

## V. 현실과 담론

중세 내내 프랑크족의 트로이 기원설이 유행했다는 점은 왕국의 통합과 관련한 작업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 왕국의 통합이 늘 미완성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214년의 부빈전투는 플랑드르를 중심으로 한 북부 프랑스 귀족들과의 충돌을, 그리고 1209년부터 시작된 알비 십자군은 툴루즈 백작을 중심으로 한 남부 프랑스 귀족들과의 충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부빈 전투 직후 필리프 2세를 ‘트로이의 왕’으로 환호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상황을 잘 요약해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리고르와 기욤 르브르통의 서술은 지배와 종속, 정복과 투쟁의 역사를, 푸코가 단언하는 것처럼 지우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순치시키는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들이 기술하고 있는 역사담론의 겉표면은 동질성과 통합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종족이라는 구분으로도 모자란 다종다양한 지역적 균열들을 감추고 있다.

오히려 이 다종다양한 갈등은 마치 두 종족의 문제인 것처럼 단순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는 투쟁에 초점을 맞춘 17세기의 불랭빌리에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여기에서 문제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투쟁가능성이 두 세력들 간의 단순한 전선으로 환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세에는 다양한 지역적 갈등들이 두 종족의 문제로 치환되었듯이 이후 근대세계에서는 다양한 정치·사회적 문제들이 두 종족의 갈등문제로 또는 한 종족의 생존문제로 치환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문제는 기조와 부르주아 역사가들이 프랑스의 역사를 귀족과 부르주아 사이의 계급투쟁으로 요약할 때에도 늘 상존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푸코는 담론의 내용이 통합과 투쟁 중 어느 것을 강조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지점에서

갈등과 투쟁의 다양성을 강조하던 그가 전선이 명확한 종족투쟁의 담론에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종족투쟁의 담론이 감추고 있는 현실의 사회적 갈등이며 다종다양한 갈등들이 단순한 종족투쟁의 담론으로 환원되는 과정과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중세의 종족이주설들은 푸코의 단순한 평가와 달리 프랑스의 동질성에 대한 담론이지만 그것은 사회적 이질성과 정치적 갈등에 무관하기보다는 현실과의 연관성 속에서 보다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균열들을 드러내고 있다.

고려대학교 hadrianus@daum.net